

# CHA

## SUCCESS STORY OF THE CHA GROUP

차병원그룹의 성공신화



설립자 Chairman KwangYul Cha의  
난치병을 향한 사랑의 도전

# 꿈의 나래를 펴다



1

호기심이 많고 바둑에 심취해 있던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은 어느 날, '인간은 왜 태어나면 꼭 죽게 되는지', '인간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한 의문을 품기 시작한다. 그런 생각들이 바둑판을 휘저어 놓기 시작하면서 그는 난치병에 대한 해결책을 직접 제시해 보겠다는 꿈을 품기 시작한다.

의대에 진학해서 모든 사람들이 난치병으로부터 자유롭고 질병 없는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는 다짐을 한다. 다들 높은 수입 때문에 의사의 꿈을 꾸고 있을 때, 그는 오직 난치병 치료를 위한 원대한 꿈을 꾸며 의대를 지원하게 된다.

연세대 의대에 입학한 그는 각고의 노력으로 공부해 의대를 우등상을 수상하며 졸업한다. 의대 졸업 후 레지던트 2년 차가 되던 어느 봄날, 그는 한창 개발 중이던 강남의 한 부동산을 혼자서 찾았다. 강남 지역 지도를 사 들고 간 그는 지도를 절반으로 접고 또 한번 접었다. 그리고 접은 지도를 펴고 꼭지점을 가리키며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이 주변 땅을 사 달라고 했다.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은 "쓰레기 가득한 쓸모 없는 땅을 사서 무엇 하나"고 말했고, 중구 초동의 옛 스카라 극장 자리에서 산부인과를 운영하던 아버지 차경섭 차산부인과 원장은 "지금 산부인과도 충분히 잘되고 있는데, 그쪽으로 옮기면 환자가 오기나 하겠냐"며 강남 이전을 반대했다.

아버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머니와 지인들을 설득해 돈을 빌려 쓰레기 더미 가득한 그 땅을 구입한다. 그 불모지의 땅을 구입하는 것을 시작으로 국내 의료계는 물론 세계 의료계에도 굵직굵직한 족적을 남긴 차병원의 신화가 시작된다.

## 1984~2011



2



3

### 1984년 강남차병원 설립, 전문병원시대 열다

그는 1984년, 쓰레기 가득한 그 땅에 강남차병원을 설립하며 제2의 창업 시대를 연다. 강남차병원은 당시 건축물로는 상상할 수 없었던 럭셔리함과 안락함, 여성 편의성을 최대화하며 대한민국 최초 전문병원시대를 열었다.

또한, 국내 병원업계 최초로 CIP를 도입해 새로운 병원의 모델을 제시했다. 차광렬 총괄회장이 직접 진두 지휘하기 시작한 제2의 창업기에는 당시 난치병이나 다름 없었던 불임 치료와 생식의학에 관한 세계적인 연구 성과들이 쏟아져 나온다. 1986년 민간병원 최초 시험관아기 출산 성공을 시작으로 세계 최고의 학회에서 최우수논문상을 7차례 이상 수상했고, 세계 최초 그리드를 사용한 인간 난자의 유리화 동결 보존법 개발, 세계 최초 유리화 냉동 난자 아기 출산 등 9개의 세계 최초 기록과 난자 내 정자 직접 주입법에 의한 분만 등 3개의 동양 최초 기록이 탄생한다.

이에 만족하지 않고 연구와 임상을 함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차의과학대학교를 설립 전역, 전학년, 전원 파격 장학금을 지급해 최상의 의료 인재를 길러내며, 세계 최초의 통합의학대학원도 설립한다. 이 와 함께 분당차병원, 구미차병원, 국내 최초의 종합검진센터 스포렉스 등을 설립하고 연구와 임상에 제품개발까지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차바이오텍과 차바이오 F&C와 같은 관련 회사들을 설립했다. 이를 통해 난치병 개발과 치료가 가능한 기초체력을 다지는 데 그의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

1 차병원그룹 설립자 차광렬 총괄회장 2 1984년 대한민국 최초의 전문병원 강남차병원 설립 3 1986년 국내 민간병원 최초 시험관 아기 출산 성공



# 1984~2011



## 생식의학으로 세계를 점령하다

제2차대전기에는 세계 속에 국내 의료를 알리기 위한 노력도 끊임없이 시도한다. 1999년, 그는 미국 콜롬비아대학으로부터 로열티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콜롬비아대학 내 불임센터 설립을 제안받는다. 그리고 콜롬비아 대학 내 C.C(차\_콜롬비아) 불임센터를 설립한다. 이것은 국내 최초의 의료 수출로 미국 속에 국내 의료 기술과 수준을 알린 쾌거로 기록된다. 이어 여기서 멈추지 않고 보다 적극적인 난치병 치료를 위한 밑그림을 그려간다.

줄기세포야말로 난치병 치료의 핵심이라고 생각한 그는 줄기세포의 활발한 연구를 위해 미국 뉴욕의 연구센터를 줄기세포 연구가 활발하고 법률적 규제가 용이한 LA로 옮기려는 구상을 한다. 2004년, 줄기세포의 연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국내 최초이자 미국 내 유일한 한국인 소유의 종합병원으로 기록되고 있는 LA 차병원과 차불임센터를 설립한다. 현재 LA 차병원은 LA시내 최대의 개인병원으로 승승장구하며 그 이름을 알리고 있다.

대형 병원을 인수한 초창기에 어렵고 힘든 기간 중 서울에서 미국으로 선발 파견된 간호사, 행정 요원들을 차광렬 총괄회장이 직접 운전하여 출퇴근시키는 등 병원 정상화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친 헌신과 사랑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2013년 7월 KBS '추적 60분'에서는 '차병원이 미국으로 간 까닭은?'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차병원이 미국 LA로 진출한 이유에 대해 상세히 기술한다. 한국의 많은 규제 때문에 미국 뉴욕으로 연구 근거지를 옮겼던 차병원은 보다 적극적이고 용이한 연구를 위해 다시 한 번 LA로 연구소를 옮긴다. 국내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하면서 국제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는 내용과 함께 이런 결정을 한 차광렬 총괄회장의 결단과 미래를 내다보는 예지력을 극찬한 바 있다. 실제 그의 이런 판단은 정확하게 들어 맞았다. 황우석 사건 이후 여러 가지 규제에 묶여 배아줄기세포 연구는 사실상 국내에서 전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병원은 한국과 미국 LA에서 꾸준한 연구를 진행해 세계 최초의 성인 체세포 줄기세포를 만들어 내는 데까지 성공하게 된다.

## 1999년 국내 최초 의료 수출, 뉴욕 C.C불임센터 설립

LA를 선택한 이유 또한 교포들이 많은 곳에서 병원 운영을 하는 것으로 이해했던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난치병 치료를 위해서는 어떠한 장애도 극복하겠다는 차광렬 총괄회장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모든 업적들이 세계적으로도 높이 평가돼, 미국 최대의 생식의학회인 ASRM에서는 KY Cha Award를 신설해 그의 공로를 기리기도 했다.

2010년에는 그의 철학이 반영된 질병이 오기 전에 미리 치료를 하고, 동서양의학과 최첨단 줄기세포까지 모든 의료를 총망라해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새로운 컨셉의 미래형 병원 차움을 설립해 국내외의 찬사를 받기도 했다. 특히 차움은 DNA 검사 등 각종 검사를 통해 20~30년 후의 병을 예측하며 미리 예방 조치를 취하므로 장수를 누리며 살게 하겠다는 철학이 반영된 것이다. 미래형 병원 차움은 국내 의료의 높은 수준을 전 세계에 새롭게 알려 현재까지도 수많은 세계적인 명사들부터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찾아오는 곳으로 2014년에는 처음으로 외국인 방문객이 5,000명이 넘어서면서 고급스러운 한국 이미지를 전파하는데 큰 기여를 하기도 했다.

사실 이러한 모든 결과는 난치병 치료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세포치료와 줄기세포 연구 및 투자에 지속적인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차광렬 총괄회장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1998년 320억 원 기부를 시작으로 2011년에는 줄기세포 연구를 위해 개인 사재 100억 원을 연구비로 쾌적, 2015년에는 의사와 환자, 치료제 개발 회사가 난치병 극복을 위한 공동 모색의 장인 '난치병 극복을 위한 아름다운 동행' 행사를 열어 개인 사재 10억 원을 쾌적하는 등 지금까지도 난치병 극복과 후학 양성에 힘 쏟고 있다.

1 1991년 타임지 표지 차병원 불임연구 성과 소개 2 1997년 포천중문대(현 차의과대학) 설립 3 1999년 미국 뉴욕 C.C(차\_콜롬비아)불임센터 설립으로 국내최초의 의료 수출 사례 기록 4 2004년 LA 할리우드 장로병원 인수, 미국 내 유일 한국인이 소유한 종합병원으로 기록 5 2010년 세계최초 미래형 병원 차움 설립



## 2012~ 현재



### 2012년 바이오로 세계적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바이오 입국' 선언

차광렬 총괄회장의 줄기세포 치료에 대한 신념과 노력은 2013년 세계 최초 타인 제대혈 줄기세포로 뇌성마비 치료 성공과 2014년 세계 최초 성인체세포로 복제줄기세포 확립 성공, 최근에는 4년여의 임상시험 끝에 세계에서 두 번째,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배아줄기세포 치료제를 활용해 대표적 실명질환인 노인성 황반변성과 스타가르트병 환자를 호전시킨 사례 발표로 이어졌다. 이는 세계 최초의 줄기세포 치료제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을 증폭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차광렬 총괄회장의 업적은 해외에서 더 알려져 200여 편 이상의 저널 연구논문 발표와 주요 학회 및 대학에서 230회 이상 특별 강연자로 초청되는 등 이름을 떨치게 된다.

또한 세계적으로 유래 없는 줄기세포의 채취에서 수술까지 한번에 가능한 차음 줄기세포 임상시험센터를 오픈하는가 하면, 2014년에는 모든 난치병 치료의 연구와 개발이 융합할 수 있도록 하는 미래형 연구원 차바이오컴플렉스를 오픈하고 바이오 입국의 토대를 만들게 되는데, 이곳은 기초연구에서 전임상, 임상까지 연구자와 개발자 그리고 의사가 서로 의견을 나누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바이오 치료제 연구, 개발의 새로운 장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2015년 5월 마침내 성남시와 '첨단(줄기세포) 의료시설과 공공의료 클러스터 조성에 관한 협약'을 맺어 국제줄기세포 전문치료병원, 줄기세포 통합연구센터, 임상시험 센터 등이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 줄기세포 메디 클러스터' 설립을 가시화시켰다. 그가 평생 소원하던 임상시험 병원과 바이오벤처, 제약사들이 컨베이어 벨트처럼 이어지는 '바이오시티(Biocity)'가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최근 그는 줄기세포 연구의 세계적인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빠르게 변화하는 흐름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하며, 특히 중국과 일본 등에 뒤지지 않을 국가적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 바이오가 세계를 압도해 주도권을 잡으려면 줄기세

포 은행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며, 미래는 병에 걸리더라도 자신의 제대혈을 활용해 치료받고, 복제 배아줄기 세포로 질병을 예방하는 시대가 5~10년 안에 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국내 줄기세포 중주회사 격인 차병원그룹은 체세포은행이 질병 치료에 새 지평을 열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현재 체세포복제줄기세포 은행 설립을 계획 중에 있다. 체세포복제줄기세포 은행 설립이 난치병 치료를 실현시켜줄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사실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었던 건 난치병 치료와 줄기세포 연구에 모든 것을 걸겠다고 말한 그의 열정과 집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한편, 그는 최근까지도 서울스퀘어 건물 2~3층 총 2,000여 평 규모로 아시아 최대 규모인 차병원 서울역 난임센터를 오픈해 차병원 56년의 모든 노하우를 집결시키고 37년자은행 등 만혼 시대와 노산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비하는 신개념 난임센터를 국내 최초로 선보인 바 있다. 37년자은행은 37세 이전에 난자를 보관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의미로 차광렬 총괄회장의 아이디어로 만들어 진 것이다. 또한 2016년에는 분당차병원이 분당 판교 등 성남지역에서는 유일하게 JCI 인증을 획득하였는데, 이는 수준 높은 진료 시스템과 연구 인프라가 국제표준을 따르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결과이기도 하다.

강남차병원 설립 이후, 차병원그룹 발전의 핵심 주체가 된 차광렬 총괄회장은 전략적인 사고와 솔선수범하는 현장형 리더십, 미래를 보는 예지력으로 차병원그룹을 이끌고 있다. 그는 세계 제일의 병원, 세계 제일의 기업, 세계 제일의 대학 실현을 통한 난치병 해결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정진하고 있다. 향후 차광렬 총괄회장이 또 다른 비전으로 세계 의료계의 역사를 써 나갈지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다.

1 2012년 '바이오 입국'을 선언한 차광렬 총괄회장은 평상시 감정 터를내와 청바지를 즐겨 입는다고하여 직원들 사이에서 '스티브 잡스'로 통한다. 2 2013년 분당차병원 첨단연구센터 오픈 3 2014년 국내 최대 규모 산학연 융합한 미래형 연구원 차바이오컴플렉스 설립 4 2014년 세계 최초 성인체세포로 복제줄기세포 확립 성공 5 2015년 아시아 최대 규모 서울역 차병원 난임센터 설립